

# 지리산 댐 건설, 다시 수면위로

## 실상사 비롯한 지리산 종교연대, 건설백지화 촉구

지난 2012년 환경단체와 지역단체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예산이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지리산댐(문정댐)의 건설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댐 건설 사전 검토회의를 7월 7일 개최한다고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부산지역본부가 밝혔다. 수자원 공사는 애초 다목적 댐으로 건설을 계획했던 지리산 댐을 홍수조절 전용으로 바꾸고 저수량 규모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상사 등 사찰과 문화재, 용유담 등에 침수·수몰되는 피해가 없도록 댐 저수량도 1억 7천만톤에서 6천만~7천만톤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부산의 식수 공급용으로 보고 있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하여 수자원 공사는 홍수조절용 댐은 앞 부분에 커다란 방류구를 설치해 담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식수공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이후 업무에 복귀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6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경남 협력문제를 다루며 '부산시민

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물 문제'. '지리산 댐을 부산 물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상수도 댐으로 건설하는 방안'과 '주민투표로 댐 건설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동안 지리산 댐 건설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의 실상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 생명연대와 서부 경남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원회, 경남환경운동 연합등 4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지사가 왜 부산시장 노릇까지 하려하느냐 며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며 지리산 댐의 건설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리산 환경과 주변 문화재들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은 뻔하다"며 "지리산 다목적댐(식수용)이나 홍수 조절용 댐 건설 모두를 반대한다"면서 "지리산댐 건설은 기본적인 절차 없이 주민참여가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11일 사천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리산 종교연대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6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홍준표 도지사 댐건설 재언급 지역불교계·시민단체 반발 "문화재 훼손, 침수피해 뻔해"

문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부르는 것은 댐 건설 후 예상하는 실상사 문화재 훼손이나 절경을 자랑하는 용유담 수몰,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사천만 침수 피해 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환경연 등은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연환경과 주변 문화재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전 등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애초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세우려 했던 지리산댐 규모는 길이 896m, 높이 141m, 담수 면적 4.6km<sup>2</sup>이다. 사업비는 9천897억원이 투입되며 총 저수량은 1억7천만톤에 이른다.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용유담의 명승 지정 절차와 맞물리면서 담보 상태에 있었으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등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마곡사에서 65년전 '백범'을 느끼다

김구 선생 추모제... 사진 20여점·회화 10여점 전시

백범 김구 선생의 추모제가 공주 마곡사에서 열렸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는 6월 26일 연화당과 백범당 일원에서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원종 스님) 65주기 추모 다례제와 사진·회화 전시회'를 열었다.

이날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김구 선생은 풍전등화에 놓인 민족과 나라의 명운을 밝혀 오늘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데 초석을 다진 분"이라며 "김구 선생의 구국 애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마곡사는 추모제에 이어 백범당 일원에서 김구 선생의 사진·회화 전시회를 진행했다. 전시회에서는 김구 선생이 1946년 마곡사를 방문했을 때의 기념사진을 비롯해 49제 기념 사진 등 20여 점이 선보였다.



김구 선생은 1896년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분노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해 마곡사에서 은거할 때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했다. 3·1 운동 직후 중국으로 망명한 김구 선생은 환국 후 50여 년 만에 마곡사를 방문했다. 마곡사는 이러한 인연으로 김구 선생의 49재를 지낸 바 있다. 노덕환 기자

## 신홍사 '스킨스쿠버 양성교육' 개강식

완도 신홍사(주지 법일)가 설립한 (사)완도문화21은 6월 24일 고용노동부 지원 20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완도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30명의 교육생과 운영위원, 6·4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

영위원·내외빈 소개에 이어 사업목적, 강의내용 및 일정, 강사소개, 운영계획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완도 스킨스쿠버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들은 올해 연말까지 스킨스쿠버 이론·실무, 창업 프로그램 교육, 취업 상담회 및 설명회 등을 배우게 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운사, 6월 25일 선운골 공동체 화합한마당



사찰과 사하촌의 마을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25일 선운사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선운골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는 '제 5회 선운골 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선운골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감대와 일체감을 갖고 사찰, 상가, 주민들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운골 공동체 화합 한마당'은 스님, 지역 주민등 200여명이 동참해 모

처럼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선운사 유스호스텔 앞 생태공원에서 열린 화합한마당은 선운사 주변 마을 사람들과 상가 번영회와 협의회, 선운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유스호스텔, 우체국, 농협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활공동체인 선운골 공동체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했다.

죽구, 농구공 놀기, 제기차기, 윷놀이, 고리 던지기, 림보, 과자 따먹기 등의 놀이를 겸한 게임을 즐기며 공동체 구성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승승이 함께 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덕사 프랑스 상송 작은음악회



산사에서 프랑스 상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연이 개최됐다. 광주 광덕사(주지 효진)는 지난 25일 대웅전에서 프랑스 상송 가수 및 연주자 '장폴과 친구들'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장폴(트럼본, 아코디언), 프랑수아(기타), 아르노(기타, 노래), 제프(드럼) 뮤지션들은 상송음악 '커피카페', '자바의 여인' 등 주옥같은 상송을 열창해 신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음악회를 참가한 장폴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마치고 퇴직해 프랑스로 돌아갔으나 퇴직 후 음악활동에 시

작한 후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자비로 다른 음악가들과 한국에 들어와 대전, 전주, 거제도 등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효진 스님은 "먼저 스스로 한국을 찾아 프랑스의 대중음악을 선보여준 뮤지션들에게 감사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음악 여행을 하는 이분들이 진정한 음악예술인이다. 한국에서 만나는 한국사람들과 불교문화를 많이 체험하고 가길 바란다"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생활불교동구협의회, 불교지도자 간담회

생활불교동구협의회는 공덕회(대표 대현)는 6월 24일 무등파크호텔 연회실에서 지방선거 광주 동구지역 당선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회용 동구청장을 비롯해 동구지역 시의원, 구의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와 불교계를 지원방안들이 논의됐다.

대현 스님은 "앞으로 4년간 동구지역을 이끌 민선 지도자들에게 불교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회용 동구청장 당선자는 "앞으로 구



정을 펴는데 불교계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며, "구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북지역 행복바라미 실천운동 전개

전국적으로 새로운 나눔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행복바라미' 실천운동이 전북 지역에서도 펼쳐졌다.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는 6월 21일 전주 세이브존 앞 광장에서 행복바라미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전북지역 포교사단 소속 포교사들이 동

참한 이날 모금행사에서 동참한 포교사들은 전주 시민들에게 행복바라미의 의미를 설명하며 새로운 나눔문화를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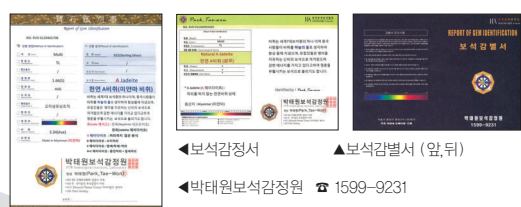
현재 전국적으로 행복바라미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에는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의 무관심속에 모금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 7대 보석종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품에 지냈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비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는?

-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 아주대 오홍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치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가** 비취 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현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르던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운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 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 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